

고황논단

시인 '김지하론'

문학은 역사성을 반영하면서 또한 작가의 내면적인
모습과 삶의 문제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. 이에 본고는
김지하 시인을 시의 흐름을 통해 그의 삶과 가치관의
변화를 보고자 하는 투고이다. (편집자주)

김지하 시인의 '애린'에서 '별
밤을 우러르며'에 걸치는 80년대의
시세계는 6~70년대에 쓰여진
'향토', '타는 목마름'에서 보여
준 현실 부정적 시세계에 비견할
때 분명 충격적 변모이다. 김지하
시인은 70년대에 누구보다 현실
부정과 반역의 정신으로 위대한 강
렬한 투사의 시인으로 우리에게
인식되어 있다. 물론 이러한 그의
선열한 이미지상은 어두운
시대에 의한 상대적 소산이다. 그러
나 많은 사람들이 문학적 웅변의
가능성과 한계성을 가늠해 보
는 자리에서 그의 시를 가장 중
심부에 놓았던 것이 사실이다. 이
러한 까닭에, 80년대 들어 '애린'
을 거쳐 '별밤을 우러르며'에서
보여준 겉과 속 시세계는 시적
변모의 극단적 도정으로 쉽게 부
각되었다.

우리는 대부분의 시인들에게서
그의 전면에 걸쳐 발표되는 작품
세계가 나름대로의 일정한 주기를
가지고 변모하는 것을 볼 수
있다. 동일한 시인의 시작품이 새
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추동력은
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?
그것은 세계에 대한 주체의 열린
세계관에서의 주체의 주관적
자아탐색이나 신념의 절대화뿐만
아니라,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
적응하기 위한 변모나 발전은 가능
할 수 없다. 비록 주제 자체나
자기전제를 가능케하는 모순적
인식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역
사현실의 동향에 거점을 두지 않
을 때 변화 발전의 촉발력을 확
보할 수 없을 것이다. 이렇게 볼
때, 시인들의 시적변모 과정에
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기존의 사
황에 대한 초극적 과정에 있다. 이
같은 모순을 배웠고/나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“한 시인으로서, 또는 진리를
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, 삶을
통해 몸부림치는 작업을 하는것이
예술이고 한다면, 그런 과정
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
끊임없는 탐구입니다”
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
것은 김지하가 추구하는 궁극적
은 진리이며, 그의 예술은 거기에
도달하고자 하는 '삶'을 통해 몸
부림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. 따
라서 그의 시적변모는 바로 이
진리의 세계에 이르러야 하는 끊임
없는 탐구의 방법론적 과정임을
알 수 있다. 실제로 지금까지
발표된 그의 작품세계 전반은 구
체적인 삶을 통한 부단한 탐구과
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. 즉 그는
사적인 개별의 존재에서 구체적인
삶의 운동을 통해 공적자아로
전환된다. 그리고 다시 외적 현실
을 창조화한 본질적인 자아로
회귀하는 순환과정을 보인다.

이같은 회귀하는 변모의 단계를
살펴보고자 한다. 이러한 작업을
김지하시인의 시적변모 과정
의 모습과 시정신의 깊이를 살펴
보는 일이며 아울러 앞으로의 바
람직한 방향성을 진단하는 일이
기도 하다.

I. 역사현실로의 지향

김지하는 대학입학 이듬해에 4
·19혁명을 겪게된다. 1941년에 출
생하여 어린시절에 해방과 6·25
를 체험한 그에게 4·19혁명은 우
리 현대사의 불행에 대한 구체적인
인식을 자각시켰을 것이다. 이때
는 분사화적으로 민주주의운동과
통일논의가 절화되기 시작한 시
기였다. 그러나 얼마 안 있어 5·
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민주
화와 통일의 실현운동은 붕괴되
고 만다. 이때 4·19의 정신적 지
향이나 이념은 먼저 내면화되어
현실에 대한 울분과 반향으로 달
아오르게 된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기본 축은 '향토'를
(나)가 가는 것이다. 그 '향토'는
은 '최악의 식민지'에 태어나 충
각 아래 쓰러져 간 나의 애비'가
죽은 곳으로 뻗어 있다. 그 길을
따라 오를은 내가 '충부리 칼날
아래서' (애비)의 '목소리'를 느
끼며 '호느끼며'라고 있다. 여기서
(애비)는 '그 밤에 초롱불을 밝
히고/참혹한 싸움에 몸바친 아버
지' ('비녀산')이다. 일본제국주의
에 항거하다 죽은 이방의 식민지
배민인 것이다. 여기서의 수난은
'향토'가 상징하는 의미를 알
수 있다. 그것은 곧 (애비)의 세
대에서 오늘에 걸치는 수난과 오
락의 (핏자국)으로 점철된 우리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는 김지하가 쓴 것이 아
니라 70년대 역사가 쓴 것이다.
70년대 시대상이 역사의 중심부
로 들어온 김지하에게 대립을 시
킨 형국이다. 이점은 이 시를 이
루고 있는 기본구조로 보여도 분
명히 드러난다. 4연으로 된 이시
는 시작 화자의 '나'가 '가슴팍
속에 깊이 새겨진 내 이름'을
(남 몰래)쓰는 행위로 이루어져
있다.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'새
겨진'에 있다. 시작 화자의 자
의에 의해 (내 이름)을 가슴팍
속에 새긴 것이 아니라 직접 새
겨지는 것이다. 시 전반의 압권은
이루고 있는 '푸르른 자유'와
(살아있는 삶)의 모습을 띤 (내
이름)이 역사의중심에 선 (내 가
슴팍 속)에 작용한것이다. (내 이
름) 그 '외로운 눈부심'의 감각
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다. 그것으로
인해 미처지 못한 것들(그것들
의 피묻은 얼굴)을 생각하게 되
고 '노여움'에 치명하게 되면서
(내 이름을 남 몰래) 쓰기에 이
른다. 즉 '나'와 (내 이름)이 '남
몰래'한 자리에 만나게 되는 것
이다. 이러한 사정의 배경은 '발
자욱소리 호르락소리 문 두드리
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이 시의 배경은 '갑갑한 이시대
의 한 밤'이다. 이를 다시 갑갑한
한밤의 시대라고 해도 의미는 마
찬가지이다. 그 한 밤은 '별빛마
저 보지 않는' '별빛'이 등장한다.
이같은 초극적 어둠의 상황(미
칠것만 같은 미칠것만 같은/서로
서로 싸우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
거의 병적 울분을 넣고 있다. 어
기서의 병적 울분은 아직 구체적인
인 투쟁의지로 전환되지 않은
'불편'이라는 '꿈틀거림' 단계
이다. 이렇게 볼 때 이시의 구성
은 '별빛'이 보지 않는 갑갑한
밤의 시대, 그로인해 '건널 수 없
는' 극도의 병적 울분, 이 둘
의 팽팽히 맞선 관계로 이루어져
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불관계의
뚜렷한 대별은 병적 '꿈틀거림'이
떨쳐나갈 길(방향)에 대한 선행
함이기도 하다. '초라한 별들' 모
두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
별빛을 찾아 나설 당위적 과정만
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. 이 무
렵 김지하시인의 '나는 그대 처
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라는 그대
처음으로 역사를 알았네' ('첫미
소')라고 진술하듯 별빛을 찾아
나서는 당위성의 수행이 곧 '역사'를
알고 (미소)이다. 찾아 나서야
할 당위적 과정이 이토록 뚜렷할
때에 그 시적변모의 결실은 급
박할 수 밖에 없다. 다음 시 '향
토'는 이러한 망설임 없는 길터
남의 모습이 펼쳐진 세계이다.

강력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자기극복과 구
원의 철학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게된
다. 일찍이 이것을 우리는 생명사상이라
고 불러볼 수도 있으리라. 결국 생명사상
과 역사적식이 김지하 시세계에
있는 기둥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
서 이 평론은 비교적 정공을 찌르고 있다
고 하겠다.

다만 평론이 보다 심도있는 내용으로
육박해 들어가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운
감을 던져준다. 그렇지만 이즈음 논리만
있고 구체적인 분석과 논증이 부족한 평
론의 일반적 경향에 비추어볼 때 나름대로
충분한